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호 주변 발전 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1일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호 중심의 자연환경 보전 △사계절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조화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광광수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 등을 위한 기반 시설사업과 진흥사업 제안을 반영했다.

시는 용역 결과 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으로서의 적정성과 분야별·부문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개별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내장호를 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토대로 계획을 구체화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

고창군이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1일 오전 5층 대회의실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심택섭 고창군수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장관 배잇싸오포안)와 화상 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과 결혼이민자 분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등 600명 정도를 수급하여 내년 3월부터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권익현 부안군수, 내년 예산안 7560억원 편성·군정방향 제시

권익현 부안군수가 1일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2022년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23년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부안군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부안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7560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금액이며 군은 앞으로 예산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원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민선8기 부안군정의 지난 5개월은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기초 위에 법고창신(法高創新)의 자세로 부안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부안 군정을 믿어 주신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2023년도에 달성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 선정(총사업비 119억원) △풍력 핵심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확정(총사업비 254억) △격포항 클린 국가어항 공모 선정(국비 150억원) △부안 고려청자



권익현 부안군수, 내년 예산안 7560억원 편성·군정방향 제시

휴게소 행복장터 개장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반대비(장애인) 체육센터 준공 △한빛권 광역 방재센터 유치(국비 100억원) 등의 굵직한 성과를 보고했다.

또 2023년도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노후대교 4차선 확장 건의 △격포 관광·휴양형 종합관광지 조성 △크루즈 시범 항차 기항지 유치 △푸드앤 레포츠 타운 조성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정 △나래 청소년 수련원 착공 △수소·풍력 기업 유치 △2023년 전국 최초 대학교 진학년 반값등록금 지원 △2023년 썬버리 성공 개최 등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시장, "시민을 위한 친절·청렴 행정" 강조

12월 청원 조회서 신규공무원 대상... 교육·홍보 캠페인 진행

정읍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청렴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1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청원 조회에서 시민 중심의 친절 행정과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공무원 대상 친절교육과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친절·청렴마인드를 한층 강화하고, 친절 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에 앞서 이학수 시장은 각자의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선 8기 시정 구호인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절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간의



정읍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청렴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저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하고,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재해 대비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친절서비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올해 각종 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2년에 실시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12월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

년도 시행할 군정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겨울철 대설·한파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전대비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연말연시 각종 송년행사가 많은데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부안군 발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에 미래부안 100년에 희망이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생활폐기물 감소 선제 대응"

권익현 부안군수,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국회 토론회 참석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원천적인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직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가 '기연성 폐기물 직매입 금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환경연구원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국내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민 공존화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명균 과장이 '제주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박호정 과장의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라는 사후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저감하



기 위한 방안도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고, 2028년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매립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활용품 수거 방식을 혼합수거에서 품목별 수거로 전환하여 서남권(부안군정읍시고창군)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하고 통합 선별함으로써 자원 회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3개기업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고창군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현정),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하), 더웬은협동조합(대표 황의민)이 2023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농축수산물 분야와 전통 가공식품 분야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상품을 발굴해 전라북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지난 7월에 2023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계획 공고 후 상품경쟁력 및 시장반응, 기업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적정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면밀한 검증과 심사 평가를 통해 도내 35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의 '바라바로 잡곡'은 국산 잡곡 6곡(현미, 찰쌀, 귀리, 찰흑미, 찰보리, 찰현미)으로 만든 1회 분량 개별 포장 간편 세척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이 섭취하기 어려운 잡곡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 경쟁력으로 시장 반응이 좋고 HACCP

인증업체로 철저한 위생과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복분자 민물장어구이'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장어를 원재료로 양념에 고창 복분자를 이용하여 생산의 최대 단점인 비린내를 최소화하여 HACCP 인증시설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일반 브랜드의 장어구이보다 경쟁력이 있고 식품위생 안전 관리와 당시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더웬은협동조합은 HACCP, 6차산업, ISO22000 국제인증 등 다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6년간 약도라지에 보약 재료인 생화탕 약재 9가지를 넣어 옛 기법에 발효한 '도라지정수'를 제조해 인증을 인정받았다. 청년 농부와 협동조합에서 직접 재배한 6년간 약도라지를 사용하며, 설탕없이 옛기법에 발효해 당류 걱정이 적다. 6차 산업인증으로 도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인 점 등 제품의 경쟁력이 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